

제 3 교시

논술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1. 다음은 ‘갑’과 ‘을’의 토론의 시작 부분이다. 토론의 맥락을 고려하여 ‘을’의 두 번째 발언을 쓰시오. (900~1,100자, 40점)

- <조 건>
1. ‘갑’의 논거를 모두 찾아 각각에 대해 비판할 것.

2. ‘을’의 입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추가 논거를 제시할 것.

갑: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현실도 잘 파악해서 실현 가능한 이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테니스 선수는 어려서부터 국가 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선수는 재능도 있었고 훈련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요. 그러나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없이는 국가 대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가정 형편도 그러한 훈련을 받을 만큼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그 선수는 서서히 자신이 헛된 꿈을 꾸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오히려 지역 대회에서 명성을 쌓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오랜 고민 끝에 목표를 바꾸고 나자, 그동안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후진 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이처럼 그 테니스 선수가 목표를 수정하고 꿈을 낮춘 것은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판단해 합리적 선택을 내린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을: 예로 드신 테니스 선수가 스스로 목표를 조정하고 자신이 현재 행복하다고 말하더라도, 과연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솝 우화에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여우는 “포도가 시어서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여우는 정말로 그 포도를 원하지 않게 된 걸까요? 여우가 그 포도를 먹고 싶어 했던 것, 하지만 가지가 높아서 따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우의 말은 자기 정당화 내지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테니스 선수가 느끼는 행복도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 봅시다. 개인의 능력의 범위나 현실의 한계를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은 사전에 제한될 수 없습니다. 실현 가능한 꿈을 추구하라는 말은 개인의 선호가 사회 구조에 의해 제어되거나 순응을 강요받는다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이는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자는 항상 현실적인 꿈을 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영속화하죠.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은 현실에 순응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사회 구조에 익숙해집니다. 그들은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일로 수용하고, 저항할 생각도 못한 채 조용히 순응하며, 고통과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도 즐겁게 감내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왜 사람들이 부조리한 현실에 무감각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조리와 부당함이 전혀 부조리하지 않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분 질서가 고착된 사회의 하층민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억압받아 온 소수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나, 성 차별이 심한 가정에서 억압 받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근본적 변화를 시도할 용기를 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의 변화 없이는 왜곡되지 않은 개인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욕망을 조정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로 꿈을 제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요.

갑: 정말로 사회 구조를 바꾸면 약자들이 잃었던 꿈을 되찾고 행복을 얻게 될까요? 역사는 강자들의 지배 구조를 전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결국 새로운 강자를 생산할 뿐이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실현하기 위한 프랑스 혁명이 오히려 무질서와 폭정으로 귀결되었음이 그 예입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제거하려 했던 사회주의의 실험도 결국 착취라는 인간 사회의 모순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동유럽에서 만들어져 널리 알려졌던,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사람을 착취하고, 사회주의에서는 그와 정반대이다.”라는 유명한 농담은 구조를 바꿈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일소하려는 노력이 헛된 것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대안은 하나뿐입니다.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선택이란 자기기만과 달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기만은 진실을 외면하고 합리적 판단을 결여한 것이지만, 합리적 선택이란 자신의 능력과 현실을 파악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한 조합을 찾아서 비교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현 가능성을 넘어서는 목표는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행복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테니스 선수가 올림픽 출전에 계속 도전했다면,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좌절과 실망을 반복하면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한 꿈을 갖는 것은 지배 질서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향한 최상의 선택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에 계속 매진하라고 권유하고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리석게도, 개인에게 불행을 향해 달려가라고 권고하는 일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행위는 부도덕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을:

| |
|--|
| |
|--|

2.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분석하고, 그중 한 제시문의 관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300~1,500자, 60점)

<조 건>

1. (가), (나), (다)에 제시된 논거를 찾아 분석에 포함할 것.
2. 자신이 선택한 관점에서 다른 두 제시문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가) 민주주의 없는 인권이란 형용 모순이다. 민주주의가 부재한 곳에서 시민은 예측적인 위치에 처하므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자율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도 없다. 시민에게 주체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될 규칙을 제정하는 데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부재는 시민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인권의 존립 기반을 허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인간 존엄의 한 요소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는 핵심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타인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의 행동의 자유가 침해된다. 이러한 소극적 의미의 행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필연적으로 연관된다. 시민은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정부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시민에게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제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행동의 자유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되므로 정치적 참여권의 보장 없이는 행동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인권을 적절하게 향유하는 데에도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우리는 인권 실현 과정의 역동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어떤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갈색 눈이나 검정 모자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상태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의 해석을 통해 다른 이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능동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능력은 인간이 자신의 견해를 공적으로 제약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현된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해석하는 능력과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나) 인권과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했다. 인권은 개인의 차원에서 인간 존엄, 생명, 자유, 평등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했다. 그에 비해 민주주의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의사 결정 절차로서 발전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 이외의 추가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컨대 민주주의는 정치 과정에 시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만 인권의 요구는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양보가 가능하지만 인권에 대해서는 양보가 불가능하다. 인권은 민주주의보다 더 절박한 인간의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자기 결정을 하나의

필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이 요구하는 집단적 자기 결정의 수준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한 수준보다 낮다. 예를 들어, 시민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갖추지 못했지만 시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그 나라의 정치 과정을 통해 공공선을 실현하고, 시민에게 적정 수준의 건강, 교육, 경제적 안정, 신체적 안전 등을 보장해 주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 시민에게 평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국가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최선의 정치 제도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 과정에의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는 사회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이는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규범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이를 용인하는 것이 관용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정치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정치적 이유로 시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겠지만, 고유한 문화와 전통에 입각하여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선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사회의 정치 제도는 합당한 것으로 용인해야 한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요구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어떤 사회 제도가 근본적인 선(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그 제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인권이라는 근본적 선과 관련해서 보자면, 민주 정치를 구현한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이 존재한다. 고문을 예로 들어 보자.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고문과 같은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정치적 결사나 정당들의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힘을 결집하여 인권 침해의 책임자를 응징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지닌 참여와 경쟁이라는 요소가 인권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공직 진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기 어렵고, 드러난다 하더라도 책임을 추궁하기 힘들다. 그 결과 권위주의 국가의 통치자들은 억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떨쳐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설령 인권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이는 전략적인 목표에 따른 것이다. 권위주의 국가의 통치자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언제든지 인권에 대한 보호를 철회하므로, 그들로부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권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사이의 상관관계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확인된다. 근대적인 국제 관계가 확립된 이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좀처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평화적 수단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또는 비민주적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늘어날수록 국제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발전하며, 이는 전쟁이 야기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의 분량 미달과 분량 초과는 같은 기준으로 감점됩니다.